http://dx.doi.org/10.35704/YJH.60.9

장석영의 러시아 체험을 통해 본 근대기 중화 사상의 일면

한길로*

- 목 차 -

I. 서론
II. 러시아와의 조우와 체감되는 문화적 이질감
III. 한인 사회를 향한 실망과 중화사상의 재구축 도모
IV. 결론

|국문초록|

회당 장석영의 『요좌기행』은 한문으로 작성된 20세기 북만주 및 러시아 기행문으로, 당대 유림의 대외인식과 현지의 실정을 매우 잘 담고 있는 유의미한 기록이자 한국 한문학의 영토를 넓힌 문학 작품이다. 당시 62세의 노유였던 그는 1912년 음력 1월, 맹동의 추위를 뚫고 만주와 러시아로 향하여 약 100여 일 동안 15,000리를 돌아본다. 이민족의 지배를 피하고 유도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이거지를 모색하려던 그는 북만주를 넘어 지금의 극동 러시아까지 당도했다. 그곳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러시아의 문화와 재러 한인들의 삶은 그에게 대단히 큰 인상을 남겼다. 기차에서 만

* 길림대학 한국(조선)어학과 부교수

난 러시아 순검을 통해 '인(仁)'의 보편성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러시아 문화는 그에게 상당한 당혹감을 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이질감을 갖게 했다. 또한 '한인 독립운동 단체의 분열과 갈등·러시아 정교회를 긍정하고 이를 받아들인 한인 사회, 또한 정처 없이 각지를 떠도는 한인 청년들의 모습과 유교 전통이 붕괴'되는 한인 사회의 실황은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결국 정통 성리학자였던 그에게, 러시아에 산다는 것은 곧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은 채 "아호(俄胡)"가 되는 것으로 각인된다. 즉 직접 해외로 떠날 수 있었던 근대 유림 장석영에게 과거의 구제(舊制)와 중화의 전통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자기 정체성'이 되면서 반드시 보수해야 할 스스로의 유산이자 전통이라는 것이 한층 확고해진 국면을 보였다.

주제어 : 장석영, 『요좌기행』, 중화사상, 이승희, 재러한인

Ⅰ. 서론

조선 후기 국내 정치의 혼란과 각종 폐단에 따른 민중들의 삶은 심히 피폐해져 갔고 특히 '홍경래의 난'이 상징하는 것처럼 한강 이북지역의 민심 이반은 더욱 심했다. 이에 '생존'의 공간을 찾아 도강을 택하는 주민들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1] 이는 한인들의 이민이 간헐적이거나 개별적인

1) 조선 후기 이상 저온 현상과 기근은 농업생산력의 저하와 전염병으로 이어졌고,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기는 그 정도가 가장 심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다. (김영미, 『조선 후기 지식인의 일상과

성격에서 점차 집단적인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간도 및 만주 지역과 함께 이민자들이 발길이 닿은 곳은 옛 발해의 고토로 현재의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연해주' 일대였다.[2]

현재까지 확인된 최초의 연해주 정착은 1863년(철종 14년)인데 당시 그곳에는 5~6채의 한옥이 있던 곳에 불과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1869~1870년에 이곳으로 향한 한인의 수는 6500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으로 변모했다.[3] 더욱이 러시아의 정책에 따라 초기 이민자들의 정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민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나아가 1905년 이른바 '을사조약' 이후 러시아로 향하는 한인들의 대규모 이동이 다시금 전개된다. 이 시점을 계기로 한인들의 이주는 소위 생계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국면을 보이며 의병활동 및 문화계몽 운동의 색채가 더해진다.[4] 그리고 이 시기 이곳으로 향한 인물들 중에는 이른바 '유림' 세력도 있었다.[5]

이에 따라 근대기 한국 유림의 러시아 이주와 '기행'도 성사되었지만 이곳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1912년 서간도 및 북만주를 거쳐 송황령(宋皇嶺), 즉 우수리스크 일대까지를 둘러본 장석영의 『요좌기행』은 당대 유림의 러시아 기행 및 체험의 면모와 그 소회를 담고 있는 희소한 기록이자 중요한 문학작품으로 평가되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32쪽.)

2) 이곳은 기후의 유사성과 지리적 근접성으로 과거 한인들의 이민이 빈번했었는데 특히 함경도 변경에 거주하던 기민(飢民)들의 도강이 다수였다. 즉 연해주 일대는 오랜 기간 타국의 영토에 속해 있었지만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이 지역과 한민족의 관계는 면면히 이어졌던 것이다.

3) 고승희, 「19세기 후반 함경도 변경지역과 연해주의 교역활동」, 『조선시대사학보』 28, 조선시대사학회, 2004, 163~165쪽.

4) 박보리스. 「러시아의 한인, 19세기 중반~1930년대 말」, 『교민논총』 1, 경북대학교 한국교민연구소, 1997, 136쪽.

5) 이 시기 이 일대에 머물던 대표적인 유림 세력으로는 기호 유림으로 의병을 이끌며 '십삼도의군도총재'에 추대된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 1842~1915)과 영남 유림으로 한인촌 개척에 진력하며 해삼위와 중국 밀산을 오가던 한계(韓溪) 이승희(李承熙, 1847~1916)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었다.[6] 그는 1912년 1월 19일 칠곡 왜관 석전진(石田津)을 출발하여 중국에 도착한 뒤 다시 국경을 넘어 지금의 연해주 일대를 둘러보았다. 이후 4월 28일 귀국하게 되는데 약 100일간 15,000리에 걸친 길고도 특수한 여정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7]

기존 연구에서는 본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의미와 함께 기행의 배경과 동선, 각지에 대한 장석영의 인식, 시적 특징 등을 분석한 바 있다.[8] 다만 그의 러시아 체험과 그 소회의 특성을 예각하화여, 이를 통해 근대 유림에 내재되어 있던 기존의 '중화관념'[9]과 대외인식이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연구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즉 종래부터 근대까지 이어진 러시아에 대한 관념이 실제 러시아를 목도하고 체험한 이후, 어떠한 관점과 시선에서 인지되고 포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다. 또 장석영을 통해 당시 노령지역 한인을 바라본 근대 유림의 시각과 그 특성을 궁

---

6) 윤병석, 「요좌기행 해설」, 『사학지』 8, 단국사학회, 1974, 164쪽.

7) 정우락, 「『요좌기행』을 통해 본 장석영의 만주체험과 그 의의」,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209쪽.

8) 기존 연구들은 「요좌기행」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특성을 개술하고 있어 본고의 작성에 상당한 참조가 되었음을 밝힌다. 단 본고는 선행 연구가 만주체험과 그 문학에 집중된 것을 보완하여 러시아와 러시아의 한인 사회를 향한 그의 시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윤병석, 「요좌기행」·「요좌기행 해설」, 『사학지』 8, 단국사학회, 1974, 서동일, 「1910년대 한중 유림의 교류와 공교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13; 「1910년 전반기 장석영의 외부세계 경험과 유교인식」, 『한국인물사연구』 22, 한국인물사연구회, 2014; 정우락 「『요좌기행』을 통해 본 장석영의 만주체험과 그 의의」,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한길로, 「晦堂 張錫英 滿洲·露嶺 기행시의 시적 구현 양상」. 『영남학』 8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2)

9) 본고에서 논하는 전통적 중화사상은 19세기 이후 형성된 중화관념의 연장선에 있다. 조선조 중화사상의 근원에는 임진왜란·명·청 교체·삼전도의 굴욕과 연관된 이른바 '대명의리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후 청의 부강을 확인한 연행사들에 의해 중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다소 확장되는 국면으로 나아갔지만 19세기 서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서세동점의 시대 배경 속에서 '반(反)서양'에 기초를 둔 기존의 중화관념은 더욱 강화되기에 이른다. 더욱이 이민족 일본의 조선 지배와 1912년 청나라의 멸망은 기존 중화관념에 상당한 충격과 영향을 주었다. 이는 한주학파의 계승자로서 주리론에 기초한 도학적 세계관을 견지한 장석영에게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왔다. 기본적으로 장석영은 중화를 타자화하거나 관념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전통과 '국수(國粹)'와 연결하며 마땅히 계승해야 할 도리로 파악하고 있었고 중국은 직접 몸을 옮겨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에게 중화는 유자로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념이었지만,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현실적 가치'이기도 했다. 그의 기행은 이러한 이념적 전제 속에서 이뤄졌다.

구하려는 시도 또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 본고에서는 장석영의 러시아 체험을 중심으로 그의 기행문인 『요좌기행』을 분석하려 한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교통의 발달에 따른 기행 장소의 변화는 곧 사상적인 변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한문학의 새로운 배경이자 창작 풍토와 연관되어 문학사적으로도 주목되기 때문이다.[10] 아래에서는 과거 '대비달자(大鼻獺子)가 사는 악라사(鄂羅斯)'로 인지되기 시작한 러시아가, 근대기 한국 유림 장석영에게는 어떠한 존재로 체감되었는지 살펴보겠다.[11] 이어, 전통 의관을 정제한 채 미지의 이역을 누빈 한 유학자의 눈에 비친 재러 '한인사회'를 향한 시선과 관점을 분석하며, 당대 유림의 현실 인식 및 재러 한인사회의 실상을 다채롭게 살피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체험을 통해 나타난 그의 중화사상의 인식에 주목하며 이른바 수 세기를 이어온 중화사상의 '근대적 국면'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Ⅱ. 러시아와의 조우와 체감되는 문화적 이질감

과거 조선의 사신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 '화이론'의 구도

10) 러시아 실지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담긴 한문학 작품의 연원은 189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한 사절단 민영환·윤치호와 함께한 김득련의 『환구일록(環璆日錄)』과 『환구음초(環璆唫艸)』이다. 이 저술들은 이 시기 지식인의 근대 의식의 확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민감한 외교문제나 구체적 내용이 제외된 채, 단지 사신으로서의 보고들은 바를 기록하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한편 민영환의 『해천추범(海天秋帆)』은 『환구일록』에 약간의 가필이 된 것으로 사실상 『환구일록』과 동일서로 평가받는다. (홍학회, 「1896년 러시아 황제 대관식 축하 사절단의 서구체험기, 『해천추범』」,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62쪽, 김미정, 「러시아 사행시 『환구음초』의 작품 실상과 근대성 고찰」, 『인문학연구』 99, 충남대인문학과학연구소, 2015, 33쪽, 하경숙·구사회, 「『환구음초』에 나타난 지식인의 근대 문명 인식과 특질」, 『온지논총』 54, 온지학회, 2018, 160쪽.)

11)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러시아 이해」, 『한국실학연구』 16, 한국실학학회, 2008, 373쪽.

속에서 이어졌고 주로 북경의 옥화관에 머문 사신들이 보거나 들은 바를 통해 형성되었다. 대개는 그들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거론하며, 서구 오랑캐의 한 종족으로 인지하는 것이 다수였다. 하지만 17세기를 기점으로 러시아의 동진정책이 가속화되며 중국조차 러시아를 강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러시아에 대한 인식은 점차 '공포'와 불안으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른다. 이후 1884년 '조러수호통상조약'이 공식 체결되면서 부정하기 어려운 '강국' 러시아를 향한 시각은 보다 다각화 되는데, 특히 침략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기에 이른다.[12]이후 청일·러일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인종주의'가 부상하기 시작했고 이는 의병 및 보수 유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확대되었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들과 유림 인사들 또한 '연해주' 일대로 향한다. 이곳 지형은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하면서도 국내·중국·러시아에 흩어진 의병·민중들을 통합 지휘하기에도 효과적이며, 인적·물적 기반도 비교적 풍부하였기 때문이다.[14] 유인석과 동시기인 1908년 해삼위에 도착한 장석영의 지우 이승희가 러시아 접경의 밀산 한흥동을 거점으로 삼으며 "집 없이 떠도는 한인들을 전접(奠接)하고 애국정신을 고무 감발코자 학교를 세워 청소년을 기르며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복국의 근거지"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 역시 이러한 맥락과 닿아있다.[15]

이렇듯, 이제 유림에게 이곳 극동러시아 일대 및 중·러 경계지대는 단순히 기행의 장소로 국한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민족의 지배를 피해

12) 노대환, 「19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對러시아 인식의 변화」, 『역사문화연구』 42, 역사문화연구소, 2012, 3~36쪽.
13) 최규진, 「러일전쟁 전후 한국인의 러시아 이미지 형성 경로와 러시아 인식」, 『마르크스주의 연구』 7,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230쪽.
14) 이애희, 「의암 유인석의 연해주에서의 의병투쟁과 사상적 변이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69, 동양철학연구회, 2012, 134~135쪽.
15) 한길로, 「백계 이기인의 「蜜山追憶記」 연구, 『영남학』 76, 경북대학교 영남학연구소, 2021, 263쪽.

유도의 회복과 국가의 독립을 도모해야 할 '가능성의 땅'이 되어 있었다. 회당 장석영 역시 동일한 배경에서 현재 중국 동삼성 일대를 경유하여 연해주 일대로 떠나게 된다. 전통적으로 주목되었던 '중화'의 중심인 산해관 내부나 인근이 아닌 시베리아 일대로 향한 것은 물론 이승희와의 만남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다만 이곳은 풍부한 농토와 함께 다수의 한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옛 발해의 고토(故土)라는 인식으로 인한 역사적 명분이 있었기에 새로운 이거지를 모색하려는 그의 뜻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장소였다.[16]

이 과정에서 그가 처음으로 마주한 '러시아'는 다름 아닌 '러시아 기차'였다. 그는 이승희를 만나기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면서 처음으로 러시아의 실물을 체험하게 된다.[17] 하얼빈에 당도하여 이승희를 만나기 위해 밀산(蜜山)[18]으로 향하는 러시아 기차로 환승해야 했던 그는, 낯선 러시아 문자와 '러·중·일' 노선이 복잡한 실정을 앞에 두고 깊은 난감함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기차에 탄 그의 시선에 가득 찬 것은 "러시아 사람과 만주 사람이었고, 우리나라 의관과 옷을 입은 것은 오직 우리 둘(동행한 李文汝_필자주) 뿐이었다. 고독하면서도 위태했지만 의지할 곳 없었다."라며 불안한 심리를 노출하게 된다.[19] 이에 그가 처음으로 겪게

16) 기본적으로 기행의 기본 목적은 장석영 스스로 "卜居를 위해 러·청 두 땅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직접 취득한 정보들과 살펴본 소회를 취합하여 이미 이곳에 머물던 이승희와 함께 머물 장소를 논의하기 위함이었다.(『遼左紀行』, 「三月一日」, 146~147쪽. "盖念吾行, 只爲去國而卜居也. 歷覽俄淸兩地." 참고로 『遼左紀行』의 원문은 부산대소장본의 원문을 옮긴 윤병석의 「요좌기행」『사학지』 8, 단국사학회, 1974, 139~160쪽을 기초로 하였음을 밝힌다. 이하 『遼左紀行』 인용 시 서명 및 서지 사항 생략.)

17) 참고로 '블라디보스토크~하얼빈~장춘~봉천(현 심양)~여순'으로 이어지는 '동청철도(東淸鐵道)'가 1903부터 개통되어 운영이 시작하면서 장석영 역시 이 열차를 타고 비로소 처음으로 러시아의 일면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18) 러시아의 국경지대로 흑룡강성 남동부에 위치한 밀산시는 현재 흑룡강성 계서(鷄西)에 속하며, 흥개호(興凱湖)를 사이로 러시아와 국경이 구분된다. 1909년 이승희는 이상설과 협력하며 이곳에 정착할 것을 결정했고 전답을 매입하고 농민들을 이주시켰다. 이승희는 이곳의 이름을 한흥동(韓興洞)이라 명하며 독립의지를 표명했다.

된 러시아인은 다름 아닌 러시아 철도 관원이었다. 하지만 장석영은 그를 통해 예상외의 발견을 하게 된다.

> 손에 차표를 쥐고 문을 지키는 순검을 찾아 가 손으로 열차를 가리키며 물으니, 그가 가가괄괄(架架聒聒) 자세히 일러주었지만 우리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또 문자로 써서 두루 청인에게 물어보며 혹여 문자를 아는 이가 있기를 바랐지만 청인 또한 답한 자 없었다. 담을 두른 듯 답답한 마음으로 방황하다보니 날은 정오가 지났고 이제는 나갈 바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 러시아 순검 하나가 우리의 기색을 보고는 측달(惻怛)의 뜻이 있어 보였는데 우리를 향하여 일장 설화를 했으나 우리는 역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때마침 청나라 사람 하나가 자못 문자도 알고 러시아 말도 이해하여 연필로 우리에게 저자가 이르기를 '오늘 저녁 9시에 교계(交界)차가 떠날 것이니 그때 내가 와서 네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을 써 보여주었다. 과연 여덟 시 후, 그 사람이 다시 와 우리를 밀며 문을 열더니 한 열차를 지시하여 마침내 차에 올라갈 수 있었다.[20]

예순이 넘은 노유의 몸으로, 음력 2월 시베리아의 맹풍과 한파로 유명한 그곳을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당시는 추위와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생존의 안위까지 걱정해야했던 시기였다. 이를 감행하고 오른 기

19) 「二月十四日」, 145쪽, "滿目皆是俄人滿人, 我國冠裳, 唯吾兩人而已, 零丁孤危, 無所依泊"

20) 위와 같음, "手持車標, 往見守門巡檢, 以手持車而問之, 則彼雖架架聒聒細述之, 而吾不知其何謂也. 又以文字書之, 遍問于淸人, 或冀其有知文字, 而淸人又無答之者. 繞壁彷徨, 日將過午, 而計不知所出, 有俄巡檢一人, 見吾氣色, 若有惻怛之意, 向我作一場話說, 吾亦不知其何所云也. 適有淸人一人, 頗解文, 又解俄語, 鉛筆書示我曰: "彼謂今晩九時, 交界車將發, 其時, 彼來敎爾"云也. 果於八點後, 其人復來, 推我出門, 而指示一車, 遂登車而行."

차에서 만난 러시아 순검은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언어도 문자도 모두 통하지 않은 '이형(異形)·이종(異種)·이문(異文)'의 이질적 존재였다. 이틀 전, 역시 기차에서 만난 산동성 출신의 장붕함(張鵬鹹, 字 羽臣)이 동성(同姓)과 함께 "동형(同形)·동종(同種)·동기(同氣)"[21]라는 점을 부각했던 것과는 상반된 현실이었다. 즉 장석영이 글이 통하는 한족 출신 지식인과 함께 숙소를 잡고 만찬을 나누며 오랜 시간 정다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이미 과거의 일로, 이제는 재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22] 하지만 장석영은 러시아 순검에게서 상당한 후의를 감지하게 되었고 이윽고 '측달지의(惻怛之意)'를 발견했다. 이에 "옛 사람이 말한 하늘이 부여한 인(仁)에는, 화이(華夷)가 어찌 다르겠는가?"라고 말하며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얼빈의 귀신이 될 뻔 했다고 언급하게 된다.[23] 이는 곧 '인(人)·물(物)'이라는 구분과 차이를 넘어, 모든 인물이 오상을 갖추고 있다'라는 정통 성리설과 스승 이진상 학설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며 모든 존재에 보편적인 인성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음을 토로한 것이다.[24] 이제 그에게 러시아인은 포악무도한 '대비달자'가 아닌, 전혀 다른 환경에 있지만 '인(仁)'과 '측은지심'을 갖춘 인격체로 내재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곡절을 거쳐 밀산으로 가는 기차에 오른 그에게 뜻밖의 우발상황이 발생했다. 그가 잠시 잠든 사이, 누군가가 표를 넣어둔 주머니를 잘라가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가 기술한 것처럼 당시 규정에는 역마다 정차하여 표를 검사하는데 표가 없으면 내쫓기거나 벌금을 크게 물어야만

21) 장붕함은 기차에서 장석영에게 시를 보내 이를 강조하였고 이후 동석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즉 그는 장석영에게 보낸 시를 통해 동질성을 매우 강조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二月四日」, 143쪽, "同形同種卽同氣")

22) 「二月四日」, 143~144쪽, "遂相與同座盡歡, 約以同宿長春, 晡時抵長春, 六百二十里, 下車, 與羽臣携手, 入淸人客店. …… 觸跋而不知倦, 至夜深就寢."

23) 위와 같음, "噫! 絶處逢生, 古人有云, 天賦之仁, 華夷奚異? 其忠厚愛人之意, 令人可感, 而微斯人, 吾將爲哈賓之鬼."

24) 이종우, 「19세기 嶺南學派의 人物性同異論爭 批判」, 『유교사상연구』 36, 한국유교학회, 2009, 245쪽.

했다.[25] 그것은 곧 "만 리 행인으로 하여금, 길가에서 죽지 않을 방도를 청"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러시아 순검에게 할 수 있는 것이란 뜯기고 남은 주머니 끈을 들어 보이며 선처해주길 기원하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26] 이후의 상황을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2월 16일) 평조(平朝, 곧 寅時로 오전 3시~5시_필자주)에 또 한 곳에 멎으니 또 나를 붙들어 차에서 내리게 하더니 한 관사에 이르러 주머니 끈 점검을 전과 같이 하였다. 그 관인은 나와 함께 차 위에 올라 뭇 순검들을 불러 모이게 하여 그 곡절을 세세히 묻고는 마침내 갔다. 대개 나를 붙들어 다시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치할지 몰라, 생사가 단지 그의 임의에 달린 것 같을 뿐이었다. 이때 이후로 매번 정차하여 표를 검사할 때, 그 순검이 항상 나의 귓불을 향해 "표"라고 크게 소리치면 나는 별안간 남은 끈을 들어 표시하였고, 그때마다 순검은 필히 크게 웃으며 갔으니 이로써 무사함을 알 수 있었다. 글을 아는 청나라 사람이 있어 나에게 "이는 큰일이오나 당신이 연로하고 또 유자의 기상이 있는지라 특별히 관대한 것이랍니다. 진실로 나이가 어려 경거망동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면 쫓겨나거나 징벌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27]

위 인용문은 러시아 순검과 단 한마디도 원활히 소통되지 못했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그와 마음이 통하여 무사히 난관을 빠져나온 상황을 대단

25) 정우락, 앞의 논문, 298쪽.
26) 「二月十五日」, 145쪽, "遂敎我擧示其囊纓餘者, 余擧示, 且日請使萬里行人, 無死於道路."
27) 「二月十六日」, 145쪽. "平朝, 又泊一處, 又押我下車, 至一官舍, 點檢囊纓如初, 那官人, 跟我至車上, 招集衆巡檢, 細問其曲折, 遂去. 盖押我再去, 莫知其將如何處置, 而死生只得任之而已. 自是以後, 每於停車索標時, 那巡檢必向我耳朶邊, 大叫標, 余輒擧纓餘以示之, 巡檢必大笑而去, 以此可知其無事也. 有淸人解文者, 謂余曰: 此大事也, 但你年矣老, 又是儒者氣像, 故特寬之也. 苟是年少, 見輕之人, 難免乎其逐出, 或徵罰也."

히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역만리에 혼자 던져진 장석영의 불안한 마음은 러시아 순검의 "대소(大笑)"에 다소나마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때마침 주위에 있던 청나라 사람의 언질을 통해, 그 역시 '노인에 대한 예우'와 '유자의 기상' 또한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는 점도 깨닫게 된다. 이렇듯 낯선 땅에서 장석영이 처음 겪게 된 러시아인은 위의 언술처럼 상당 부분 우호적으로 인지되었고 이는 과거 조선 문인들이 언급했던 것과는 상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향후 그는 "천하의 인성은 모두 같다."는 주장의 근거를 이 사례로 언급할 만큼, 이 일은 그에게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28]

하지만 이러한 우발적이고 제한적 만남이 계기가 되어 러시아를 향한 그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그에게 중화 문명은 여전히 세계 문명의 대맥(大脈)이자 중심으로서 여전히 고수해야 할 중차대한 가치였고, 그의 금번 기행은 러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라기 보다 그곳에서 '중화'의 가치와 조선의 전통을 고수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것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즉 정통 성리학자였던 그는 본디 "중화가 중화됨에는 삼강오륜이 있고 삼강오륜은 곧 고금에 행해지던 도이다. 벼리는 법통이요 윤리는 질서이니, 뭇 사물에 법통이 있으면 혼란하지 않으나 질서가 없으면 화합하지 못한다."라는 강한 확신과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이다.[29]

장석영은 이승희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상신치(上新峙)[30]에서 약 한 달

28) 1919년 전후에 쓴 글에서 그는 그 날의 경험이 곧 '천하의 인성은 모두 동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경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하단의 인용문에서 언급한 다른 한 인물은 1919년 옥중에서 만난 일본인 간수였다. (『晦堂集』 18, 「閒中疾書」, "俄國官吏一人, 見余之繞壁彷徨氣貌愁慘, 似有矜閔惻惻之色, 執余手而說得絮絮不休, 吾又未知渠何話說, 至夕此人又來携手出車場, 指示一車遂乘, 此車果至吉林, 非此人之哀矜相救, 則不免爲哈濱之鬼矣. …… 今以吾所經歷二人者, 言之天下之人性同可知矣.")

29) 「二月二十七」, 155쪽, "盖中華之爲中華, 以其有三綱五倫, 而三綱五倫, 乃天地古今中行之道也. 綱者統也; 倫者序也, 凡物有統則不亂; 無序則不和" (참고로 본 인용문은 이승희와 연명하여 당시 중화민국 대총통 원세개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30) 현재 위치를 확정하기 어렵다. 『한계유고』에 따르면 이승희는 이곳을 아국(俄國) 강동(江東)으로 표

동안 묵었는데 잠시 여유가 생긴 그는 한 청년을 만나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게 된다.[31] 이 시기 그가 요약한 러시아와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인 '지리·정치제도·풍습·음식·문화' 등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그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중화문명으로 포섭되지 않는, 그래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문화적 '비동질성'과 '이질감'이었다. 그는 종교 및 장묘 문화에 대단히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 사람이 죽으면 곧 불당으로 보내는데 승려가 염불을 하며 시체에 옷 입히고 널을 갖추어 북망(北邙)에 묻어버리는데 반드시 장(丈)의 깊이로 겹겹이 쌓을 뿐 식별이 없었다. 타국 사람이 그 땅에서 죽으면 또한 불당으로 돌아가는데 관례대로 북망에 묻는 것이 허락되고 혹 상을 치를 때면 같이 행하였다. 장지를 택하여 사적으로 묻을 때는 반드시 땅을 파서 시체를 묻고[32], 그 상인(喪人)들은 색헌리(索獻里, 즉 배소(配所)이다)에 찬배(竄配)한다고 한다.[33]

위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그의 서술은 본인이 수집한 정보들을 요약 및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장석영은 러시아에 대해, 대황제 피득(彼得) 즉 표트르 대제 이후 "물리·화학·기계의 묘함을 다하고 돌아와

기하였고 또 청나라의 치발령을 피해 이곳으로 몸을 피했다고 전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곳은 흥개호의 러시아 쪽 국경너머의 연해주 일대로 추정된다. (『韓溪遺稿』 卷1, 「俄國江東上新峙逢重九」; 「『韓溪遺稿』 卷7, 「年譜」 "(辛亥)先行薙髮之令, 以變淸制而從歐俗也, 先生不安居, 或避俄領之上新峙, 或往來於海蔘威.")

31) 「三月一日」, 147쪽, "日與村秀才, 徵遂討得此地風土謠俗, 且譯其文獻所傳, 畧著于後."

32) 정약용에 따르면 굴매(掘埋)는 "흉한 것을 묻는 곳을 가리키는데 그 백골이나 유물들을 파내는 것이다."라고 했다. (『牧民心書』, 「(刑典五條禁暴)俳優之戲, 傀儡之技, 儺樂募緣, 妖言賣術者, 並禁之」, "掘埋: 指示埋凶之處, 掘出其骨物.")

33) 위와 같음, 같은 쪽, "人死則送之佛堂, 僧爲之念佛, 衣屍具棺, 埋之北邙, 必丈深, 累累而無識. 他國人死於其地, 亦歸佛堂, 如例許埋北邙, 或有治喪而公行, 擇地而私埋, 必掘埋而投之, 竄配其喪人於索獻里(卽配所也)."

국민들을 발달시켜 마침내 북방의 패자로 천하의 강국(疆國)"이라 기술하며 강국 러시아의 면모를 인정하고 있었다.[34] 이러한 그의 전반적인 서술 태도는 '유가적 도덕률에 따른 포폄이나 재단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려는 자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술의 기저에는 개인의 주관이 상당 부분 감지되는데 특히 종교와 결합된 장례문화에 대한 그의 시선에는 상당한 '이질감'과 함께 '불편함'이 감지된다. 즉 '한인들과는 상반'된 문화 가운데 대다수의 유림들에게 가장 민감한 종교의 문제와 장례의 문제를 언급하며 자신의 주관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화는 현지의 한인들조차 동화하기 힘든 이질적인 문화였는데 공동묘지의 개념 하 '북망'에 묻는 풍습, 그리고 타 지역의 풍습이나 문화가 아닌 현지의 문화에 따라 불당으로 가야 한다는 언급은 사실상 그의 관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반(反)유교적·비인도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36] 특히 개인적으로 택지를 정하여 전통을 지키게 되면 유족들을 그 장지(葬地)로 찬배(竄配), 즉 귀양에 가까운 조치를 당한다는 그의 기술은 사실상 이곳이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불합리한 조치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를 통해 러시아의 문화는 곧 유교적 질서와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 의례인 '상제(喪祭)'와 충돌되기에 이곳이 한인들의 이거지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시선이

34) 위와 같음, 같은 쪽, "今稱大皇帝, 數世前, 有彼得, 爲君旣卽位, 潛逃于西歐英國, 托跡于雇傭勞動, 盡得其物理化學器械之妙而歸, 以發達其國民, 遂霸北方, 爲天下之疆國."

35) 정우락, 앞의 논문, 328쪽.

36) 실제로 19세기 말~20세기 초 러시아인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인의 유교적 관습과 전통은 연해주 일대에서도 여전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 남아있던 전통 유생들뿐만 아니라 당시 연해주 한인사회에도 유교 전통이 민족적 정체성과 연관되며 여전히 전승되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인들은 '한인 가정에서 여자는 남자와 겸상하지 못하고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며, 교회에는 한인들의 텅 비어있기 일쑤였고 교회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르는 한인들도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기록하였다. 또 무속과 조상숭배 의식 역시 깊어 무당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통속적인 미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혜진, 「러시아 사료로 본 한인 이주민들의 생활」, 『민족학연구』 9, 한국민족학회, 2010, 183~184쪽.)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혼인 문화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남녀는 애초에 분별이 없어 희롱하고 난잡하기가 그지없다. 오직 가슴만 다른 남자가 손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뿐, 시집가지 않는 자의 행실의 음탕함은 거리낌이 없었다."[37]라는 언급도 주목된다. '남녀유별(男女有別)'이 지켜지지 않음은 곧 그들의 생활과 습속이 이른바 삼강오륜과 거리가 멀었기에, 이는 그들의 국력과는 달리 문화적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자의를 은근히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그들의 문화와 습속을 기존 '유교문명'의 관점에서 비교 및 대조하여, 사실상 이를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유자의 내면이 다시금 표출된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그의 관점은 관념적인 것이 아닌, 유교적인 '삶'의 구현 가능 여부에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얼빈으로 가는 열차에서 만난 러시아 순검이 보여준 호의와 배려를 통해 감사함을 느낀 그의 사상적 귀결은 과거의 성리설이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에 있었다. 즉 기존의 성리설의 타당성이 눈앞에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신념이 보다 강화된 것이다. 또한 노령 상신치에 머물며 이승희와의 만남을 고대하던 그는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했는데, 러시아를 강국으로 인정하면서도 문명의 면모는 크게 취할 것이 없다는 태도였다. 그곳에는 다름 아닌 '중화'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의 실물을 보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보수적인 유림의 문명관이자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중화관념'은 더욱 견지되는 국면을 보여준 것이다.[38] 그것은 본인의 정체성 자체였으며 그것의 회복이 곧 여행의 목적이자 여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39] 이제 그의 발길과 시

37) 「三月一日」, 147쪽, "男女初無分別, 而戲褻無所不至, 唯乳則他男不敢近手, 未嫁者, 行淫無忌."
38) 서동일, 앞의 논문, 351쪽.
39) 장석영은 여행을 마친 뒤 남긴 시에서 "장차 이 고심으로 후배들을 인도하여, 우리 道 온통 혼미하지 않음을 誓令토록 하려네." 라고 밝힌 바 있다, (『晦堂集』 卷2, 「留江東四朔而還還家日謾吟(其

선은 실제 한인들이 살고있는 현장으로 옮겨졌는데, 4월 23일 다시 하얼빈에 돌아오기까지 약 두 달간 이곳을 경험하게 된다.

Ⅲ. 한인 사회를 향한 실망과 중화사상 재구축 도모

그는 이제 중·러의 국경이었던 흥개호(興凱湖)[40] 너머의 러시아 땅을 본격적으로 유람하기 시작한다. 이는 1차적으로 이승희와 만나 복거지를 결정하기 위함이었지만, 이승희의 소식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는 노령 상신치(上新峙)로 건너와 이곳의 실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그가 가거나 거쳐간 러시아 지역은 "交界[41]·寶來浦·阿島·木花浦·四里浦·屈樓聚·紅土涯·後嶺·一六浦·江原· 新峙·上新峙[42]" 등지인데 현재 러시아 국경 흥개호 및 연해주 일대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곳으로 건너온 다양한 한인들을 만나게 되며 당시 이 일대 한인 사회에 대한 실상을 접하게 된다. 그의 시선에 가장 먼저 포착된 인물들은 이역을 헤매다 러시아까지 오게 된 한국의 청년들이었다.

三)」 "將此苦心誘後輩, 誓令吾道不全迷.")

40) 러시아어로는 항카호(óзepo Xáнкa湖)이고 면적은 4,380㎢로, 3,100~5,100㎢ 크기의 동정호(洞庭湖)와 비견되는 규모를 갖고 있다. 현재 중국 흑룡강성과 러시아의 국경에 있다. 북부의 약 4분의 1이 중국에 속하고, 남부의 약 4분의 3이 러시아의 연해주(沿海州)에 속하며 11월~4월까지 결빙된다.

41) 흥개호를 국경으로 하는 러시아 영토의 시작점으로 추정된다. 장석영에 의하면 이곳은 '하얼빈에서 1,400리 떨어진 곳으로 일명 별우애(別又厓)라고도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숫자 1을 별우애라고 말하기에 이로 인해 시작되는 지점으로 명명하게 되었으니 청나라 땅 길림의 경계이다. 남쪽으로 몇 리에 한인촌이 있다.'고 밝혔다. (「二月十六日」, 145쪽, "午點抵交界, 一千四百里, 此爲俄地初境, 而交界一名別又厓, 俄人數一曰, 別又厓, 故因以名其一初地, 而與淸地吉林交境也. 南去數里, 訪韓人村.") 또 한계의 아들 이기원(李基元)은 이곳을 별유애(別維崖)로 기록하며 흥개호 호반이라고 했다. (「痛慕錄」, 『韓溪遺稿』 9, "始到興凱湖畔別維崖")

42) 장석영의 언급에 따르면 상신치는 송황령(宋皇嶺, 현 우수리스크)과의 200리 거리이다.

김정묵(金正默)·김학룡(金學龍, 모두 선산(善山) 사람이다.)·이갑종(李宗甲 무주(茂朱)사람)이 밀산에서 와서 만나게 되었다. 이 세 사람은 이우필(李愚弼)과 함께 이 땅(상신치_필자주)에 왔는데 이유도 없어 멀리 떠돌며 지낸지 이미 삼년이나 되었다. 우필은 지난달에 화발포(花發浦. 하바로프스키_필자주)로 가서 철도노동자가 되었다고 한다. 내가 홍토애(紅土涯)에 있을 때, 마침 화포(花浦)로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부모를 떠나 멀리 떠도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글로 써서 절절히 꾸짖으며 서둘러 돌아갈 것을 권한 적 있었다. 돌아온 답서를 보니 실로 귀국의 뜻이 없고 유리(流離)하며 노동하는 것을 스스로 즐기고 있어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으니 이 옛 친구의 자제를 탄식하게 되었다. 지금 이 세 사람을 만나 또 도리에 옳지 않은 바임을 극언하며 고금의 사례를 끌어와 인용하기도 하고 비유를 들어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밝히며 서둘러 부모님께 돌아가라고 해보니, 입을 열어 "네네"라고 할 뿐 돌아가는 것은 기약 없는 것 같았다.43)

위의 인용문에는 이역을 정처 없이 떠도는 한국 청년을 본 노유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당시 상당수의 한인은 가난과 기근을 피해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이 일대로 건너와 '농업·광산·부두·채벌·철도·운수' 분야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들이 고국과 가족들을 등지고 이 땅으로 온다는 것을 생사를 초월한 마지막 수단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기에 현지인들은 노예나 우마(牛馬)와 같은 천대를 받

43) 「三月一日」, 149쪽, "金正默·金學龍(皆善山人)·李宗甲(茂朱人), 自蜜山來見. 盖此三人, 與李愚弼同來此地, 無故遠游, 已三年矣. 愚弼, 已於前月, 往花發浦, 爲鐵道勞動云. 余在紅土涯, 適見花浦去人, 爲書切責其離親遠游之非, 而勸使之早還矣. 其回見其答書, 實無歸國之意, 而自樂其流離勞動, 其意不可知, 而此故人之子也, 爲之歎息. 今見此三人, 又極言其道里之不是處, 而援古引今; 曉譬曲直, 使之早自歸覲, 開曰唯唯, 而其還似無期矣."

으면서도 건강만 허락된다면 이를 자본으로 삼아 노동에 종사하며 일거리를 찾아 전전하고 있었다.[44]

이러한 청년들을 본 장석영의 가슴에는 탄식과 회한이 동시에 가득 찬다. 그의 시선에서 그들의 연해주 행은 고국의 독립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이나 호연지기를 기르고 선진 기술 습득을 추구하려는 의지와는 전연 관계없는 무고(無故), 즉 이유 없는 이동이었기 때문이었다. 질책도 해보고 또 인간으로서의 도리(道里)를 말하며 타이르듯 그들의 귀국을 권해보지만 시큰둥한 그들의 표정을 담고 있는 그의 묘사에는, 적지 않은 실망이 감지된다. 물론 그 역시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와 배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조국의 독립과 유도의 회복을 위해 혈혈단신으로 이곳으로 온 60대 노인 장석영의 입장에서는 부모와도 이별한 채 목표의식 없이 이역을 전전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분명 적지 않은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면 실망스럽기도 또 안타깝기도 한 그의 내면은 지역 한인사회를 방문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 홍토애(紅土涯)에 이른바 사회(社會)가 있는데 동주원(董周元)이 그 사장이다. 대개 본국의 어른으로 러시아 땅을 유리하고 있는 자들이 누백만인데, 대개는 노동자로서 표박(漂泊)하고 곤궁하여 고소할 곳조차 없었다. 마침내 일환(一圜)의 돈을 각출하여 유력자도 그 수에 구애하지 않고 하나의 계를 만들었다고 한다. 길흉이나 사망이 있으면 모두 이 사회의 조력으로 러시아 관리의 허가를 받고 두목이란 자는 인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뜻이 대개 아름답다 하겠다. 내가 왔을 때 동씨의 집에 머물며 그 사약(社約)을 보니 규약은 모두 다섯 개 조로 되어 있는데 그 두

44) 이상근, 「한인노령이주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31쪽.

번째가 “이 땅에 있는 것은 곧 종교로, 희랍교(希臘敎)를 숭상하니 본토의 풍속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었다. 내가 동사장에게 “이곳에 모이게 되었으니 마땅히 먼저 학교를 세우고, 총명하고 영민한 자제들을 골라 공맹(孔孟)의 책과 삼강오륜의 도를 가르쳐 우리 선왕과 선현들이 보여준 예의의 풍속을 지키는 것이 옳을 테지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말이 충실하고 믿음직하고 행동이 독경(篤敬)하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라도 거처할 만하다’[45]라는 것이 바로 이를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이 땅에 거처한다는 이유로 이 땅의 종교를 따른다는 것은, 곧 자손이 이 땅에서 태어나면 모두 이 땅의 오랑캐가 된다는 것인데 (이렇다면) 무엇하러 이 땅에 거처한다는 것인지요.”라고 했다. 동사장이 “네네”하고 답했지만 그가 끝내 내 말을 들어 시행할지 여부는 모를 일이다.[46]

물론 장석영 역시 이역을 떠도는 자들이 서로 합심하여 단체를 만들어 러시아 관리들과 접촉하고 연계하며 일종의 교섭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채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는 여전히 전통적인 화이관의 체계를 견지하고 있었기에 러시아의 풍속은 ‘이적’의 문명으로 취급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규약에 나온 ‘종교’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미 러시아는 한인들의 정착을 위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공식화 한 상태였고 1899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주교구를 설립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

45) 출처는 『논어·위령』이고 원문은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이다.

46) 「三月一日」, 151쪽, “紅土涯, 有所謂社會, 董周元其社長也. 蓋本國大人, 流離於俄地者, 累百萬, 大略是勞動者, 漂泊困窮, 無所告訴, 遂各出一圜金, 有力者不拘其數, 合爲一契, 而吉凶死亡, 皆自社中助力, 得許可於俄官吏, 爲頭目者用印章, 其意盖美矣. 余來時, 宿董家, 見其社約, 約凡五條, 其第二條, 曰: 旣在此土則宗敎, 宗希臘敎, 以從本土之俗云. 余謂董曰: 爲此會者, 當先立學校, 擇子弟聰敏者, 敎之以孔孟之書; 三綱五常之道, 保守我先王先賢禮義之俗, 可也. 孔子所謂 ‘言忠信; 行篤敬, 可居蠻貊之邦’, 非此之謂乎! 苟以居此土之故, 而從此土之敎, 則子孫之生於此土者, 皆將爲此土之狄, 何以居此土爲也. 董唯唯而答, 然未知渠終能聽施否也.”

었다.[47] 한인들은 러시아 국적을 갖기 위해선 개종을 해야 했기에 이러한 조약은 다소 표면적인 것이라고도 인지할 수 있지만, 정통 도학자였던 장석영에게는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저하는 동사장의 태도를 통해 장석영은 자신의 조언이 현실에 반영될지에 대해 다소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한인들의 현실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표출한 것이다.[48]

이렇듯, 약 두 달여의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문 장석영의 시선에서 러시아는 분명 또 하나의 '이적'의 세계였다. 그리고 현지에 머물고 있는 한인 사회의 실정을, '중화'라는 고유 문명이자 전통을 버리고 이적의 문명을 향해 걸어가는 형국으로 보며 실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그의 지우였던 이승희는 중국의 치발령을 피해 러시아 땅으로 넘어왔지만 한인으로서의 외양을 굳건히 지키며 "십년 동안이나 쓴 하나의 관을 쓰고 시간이 흘러도 전통 옷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49] 심지어 블라디보스토크의 권업회에서 만든 학교에는 '현지 러시아인조차 한문을 배우러 오는 자가 많다'는 소식 또한 접했기에 위와 같은 한인 사회의 현지 적응의 면모는 장석영의 지향과 들어맞을 수 없었던 것이다.[50] 심지어 그가 목도한 러시아 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총본산과 같았던 해삼위의 권업회가 보여준 당시 상황 역시 기대 이하의 것이었다.[51]

---

47) 이병조, 「러시아 정교와 개신교의 만남과 충돌」, 『슬라브연구』 24-1,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08, 99쪽.

48) 기본적으로 그는 기독교에 대한 개방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하얼빈에서 듣게 된 국민회(國民會)를 언급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닫힌 시선을 보였다. (「四月廿三日」, 153쪽, "謂國民會者, 果有之云, 而聞諸土人, 是皆耶蘇之敎徒也. 又多椵蒲雜類, 未必其有別人做別事也.")

49) 「四月一日」, 152쪽, "氣貌勝似平昔, 十年着一冠, 經歲不改衣, 粹益之氣."

50) 「三月一日」, 151쪽, "海參威有所謂勸業會者, 我人之流寓者, 作爲一會, 凡我人之交涉於俄人者, 皆自會中, 許可然後施行, 而又設學校, 學漢文, 又學俄文, 俄人之來學漢文者亦多云."

51)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회(편), 『한국민족운동과 민족문제』, 국학자료원, 1999, 556쪽.

"다만 이곳 사람들의 인심은 하나 되지 못해 당론이 여럿 갈렸으니 경락(京洛) 사대부와 서북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또 신진 세력은 노련한 어른들에게 복종하지 않아 오랫동안 불평이 쌓여 서로 알력다툼을 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러시아 관리에 크게 고소하고 그 생명을 해할 것을 꾀하여 살육하는 것도 매우 많아 위험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니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없음이 극심하다. 망국의 여생을 해외에 두면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으니 나라가 망하면 인종 또한 망한다는 것이 마땅하단 말인가!"[52]

위 인용문은 당시 연해주 한인사회의 갈등 양상을 매우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다. 당시 연해주 한인 사회는 크게 보재 이상설(溥齋 李相卨, 1870~1917) 중심의 경성파와 차석보(車錫甫) 중심의 서파(평안도), 그리고 최재형(崔在亨, 1860~1920) 중심의 북파(함경도)로 크게 구분되어 각기 파벌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1910년 지역의 핵심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정순만(鄭淳萬, 1876~1911)의 민회(民會)장 '양성춘 살해사건'은 당시 한인 사회의 갈등 기류와 온도를 잘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53] 장석영은 이러한 지역 파벌과 갈등 양상을 크게 우려하면서도 이것 못지않게 기독교 중심의 신진세력과 유교 중심의 노년 세력 간의 불화 양상 역시 대단히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장탄식을 뱉고 있다. 퇴계학의 계승한 주리학자였던 장석영은 이것을 곧 '인심(人心)'을 상실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곧 향후 한인 사회 건립에 있어서 유교적 전통을 통한 성정

52) 「三月一日」, 151쪽, "但那地人心不一, 黨論多岐, 京洛士大夫, 及西北人不相合; 又新進輩, 不服於老成人, 積久不平, 自相傾軋, 甚或訐訴於俄官, 謨害其性命, 殺戮甚衆, 危險莫測云, 甚矣人心之無良也. 亡國餘生在外, 而及不相得耶, 宜乎亡國而人種亦亡也."

53) 박걸순, 「연해주 한인사회의 갈등과 정순만의 피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4,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9, 262쪽.

을 키우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러시아 체험은 짧고 제한적인 것이었지만,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습득한 러시아의 문화와 재러 한인들의 삶은 그에게 대단히 큰 인상을 남겼다.[54] 그의 시선에서 러시아인은 분명 만호(滿胡)보다는 상당 부분 구별되지만, 결코 문명이라 부를 수 없는 "아호(俄胡)"였다. 한인들이 그곳에 산다면 곧 "자손들 또한 러시아 오랑캐가 될 것이니 자기의 몸으로부터 수 세기가 지나 다음을 잇는 후손들이 여기에서 태어난다면 장차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공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를 것이니 이리될 것을 생각해보면 어찌 한심한 것이 아니랴!"라고 밝혔다.[55] 즉 이민족의 압제를 피해 본인과 한인들이 나라의 독립과 유도의 회복을 도모하며 함께 여생을 보낼 장소는, 러시아가 아닌 중화회복의 가능성이 다소라도 남아있는 '요동과 산해관 이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56]

요컨대 러시아 체험을 통해 장석영은 중화의 땅에서 중화의 가치를 재건하려던 결의를 더욱 확고히 세우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요좌기행』은 직접 해외로 떠날 수 있었던 근대 유림 장석영에게 과거의 구제와 중화사상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는 '자기' 정체성이 되며 반드시 고수해야 할 과거 유산이자 전통이라는 것이 한층 확고해져 가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외부 세계를 직접 체험한 그에게 기자 조선으로까지 소급되며 문화적 자긍심과 함께 표출된 '조선 중화주의'는 보다 '자주적 입장'

54) 그곳을 떠돌도는 한인들의 삶과 갈등에 휩싸인 한인사회의 현실을 본 그는 "현명한 자는 유리하며 곤란을 겪어 스스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없고 어리석고 배움이 없는 자는 달갑게 만주족과 러시아인의 노예가 되어 그 땅을 소작하여 빌어먹고 있었다. 불량한 자는 같은 동지들에게 무기를 들어 죽여 나감에도 후회함이 없고 외부에서의 모욕도 막아내지 않는다. 망망한 세계에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아~ 슬프도다."라며 큰 한탄을 남기게 된다. (위와 같음, "其賢者, 流離困苦, 不自聊生, 其愚無識者, 甘作滿俄人之奴隸, 佃其地而丐其食. 其不良者, 同室操戈, 殺越而莫之悔, 外侮而莫之禦, 茫茫世界, 我安適歸, 吁可悲也.")

55) 「三月一日」, 152쪽, "在俄則子孫爲俄胡, 已身數世之後, 後屬之生長於此者, 將不知父母之爲何人; 孔孟之爲何物, 思之及此, 寧不寒心."

56) 「三月一日」, 147쪽, "苟可以置家於遼陽等處, 或山海關以北, 則大可."

이 배가 되어 강한 실천의지로 나아가고 있는 일면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7]

요컨대 성향(聖鄕)으로까지 지칭된 중국과 극동 러시아 일대를 둘러보고 국내로 돌아온 그에게 유교로 상징되는 '중화'는 더욱 내면화되어 가는 국면이었다. 이는 곧 해외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이 시기 유림의 유가 전통과 현실인식의 층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과거 러시아라는 국가와 슬라브 민족은 미지의 영역이자 대상으로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로 각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망이라는 미증유의 현실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이곳에 한인들의 집단 이주가 시작되면서 이곳은 '이역 아닌 이역'이 되어 버렸다. 1910년 이후 한반도에 본격적인 이민족의 지배가 시작된 이래 소위 은사금과 같은 일제의 회유는 장석영에게도 이뤄졌고, 수많은 동지 또한 선영과 고국을 등지고 먼 이역으로 몸을 던져 조국의 독립과 유도의 회복을 몸소 일구고 있었다. 장석영 역시 이에 동참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작성된 『요좌기행』은 당대 유림의 대외인식과 현지의 실정을 매우 잘 담고 있는 유의미한 기록이자 한국 한문학의 영토를 넓힌 한문 기행문이라 평가할 수 있다.

1912년 음력 1월, 맹동의 추위를 뚫고 만주와 러시아로 향하여 약 100

57) 이후 봉천으로 건너온 이승희는 1913년 동삼성한인공교회를 설립하며 한·중 합작 공교(孔敎)운동을 진행했고, 장석영은 국내에 남아 이승희의 활동을 지원했다. 이듬해인 1914년 장석영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 공교회 간부 이문치(李文治)와 만나 깊은 교류를 이어가며 우회적으로 공교회 사업에 동참했다. (서동일, 앞의 논문, 2013, 181쪽.)

여일의 기간 동안 15,000리를 돌아본 그에게 62세라는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온 더 큰 문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러시아의 제도와 문화였고 또 한인 사회의 갈등과 목적을 잃고 유리하는 한인들의 처참한 삶이었다. 더욱이 혁명 이후 중화민국의 행보 역시 심히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그것은 사실상 '중화의 오랑캐화'를 의미했다.[58] 러시아 체험을 통해 그는 중국으로 이주하여 유일하게 구제(舊制)를 구비하고 있는 한국 유림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려는 더 강한 의지로 나아갔다.

더욱이 러시아의 한인들을 보며 한국의 전통으로서의 '중화'는 더는 관망할 수 없는 심각한 이탈로 나아가고 있음이 확인되기에 이른다. 이른바 '중화인'이라 할 수 있는 '한인(漢人)'들 조차 혁명 정국 이후 중화의 정체성을 찾을 의지가 전무한 상황을 보며, 이는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게 중화의 상실은 곧 유구하게 이어온 한국 유학 전통의 멸절(滅絶)을 의미했고 그것은 곧 기자를 이어받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중화의 전통과 가치는 이제 본인을 포함한 한국 유림이 주체가 되어 반드시 보수해야 할 '자신'의 유산이자 전통이라는 관념이 한층 강화되었고, 이는 이승희와 같은 한인 유림에게 공유되며 해외 공교운동을 이끄는 주요 동력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장석영의 기록을 통해 이 시기 유림들에게 중화사상은 과거 대보단에서의 제사와 같이 관념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것에서 벗어나 직접 계승해야 할 것으로, 더욱 자기화되고 내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청제국의

58) 장석영은 "중화가 이미 정해졌기에 마땅히 만주 오랑캐들의 제도를 혁거(革去)하여 중화의 구제를 모두 회복한 연후에 비로소 대략적인 천하의 일을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명의 날, 하나같이 서양의 제도만을 따라 먼저 그 머리카락을 자르고 강상을 잘라내어 중화를 오랑캐로 바꿔버렸다"라고 말한 바 있다. (「三月一日」, 152쪽, "中華已定, 所當革去滿胡之制, 盡復中華之舊, 然後方可謂大勘天下之事. 乃於改革之日, 一從西制, 先創其髮, 絶去綱常, 變中華而夷之,")

멸망 이후 '중화 없는 중화'의 공백 상태를 목도하고 러시아라는 서방을 간접 체험하면서, 한국 유림의 힘으로 이를 직접 메우려는 모색으로 연결된 것이다.

본고는 장석영이 지닌 유교적 세계관과 현실인식의 한계를 재론하기보다, 러시아라는 공간을 통해 수 세기를 이어온 중화사상이 어떠한 관점에서 강화되고 또 재구(再構) 되는지에 집중했다. 다만 이러한 체험 이후 장석영의 내적 세계와 현실 인식의 변모까지 언급하지 못한 것은 본고의 한계로 인정된다. 향후 연구를 기약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遼左紀行』, 『晦堂集』, 『韓溪遺稿』.

고승희, 「19세기 후반 함경도 변경지역과 연해주의 교역활동」, 『조선시대사학보』 28, 조선시대사학회, 2004.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러시아 이해」, 『한국실학연구』 16, 한국실학학회, 2008.

김미정, 「러시아 사행시 『환구음초』의 작품 실상과 근대성 고찰」, 『인문학연구』 99, 충남대 인문학과학연구소, 2015.

김영미, 『조선 후기 지식인의 일상과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김혜진, 「러시아 사료로 본 한인 이주민들의 생활」, 『민족학연구』 9, 한국민족학회, 2010.

노대환, 「19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對러시아 인식의 변화」, 『역사문화연구』 42, 역사문화연구소, 2012.

박걸순, 「연해주 한인사회의 갈등과 정순만의 피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4,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9.

박보리스. 「러시아의 한인, 19세기 중반~1930년대 말」, 『교민논총』 1, 경북대학교 한국교민연구소, 1997.

서동일, 「1910년대 한중 유림의 교류와 공교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13.

_____, 「1910년 전반기 장석영의 외부세계 경험과 유교인식」, 『한국인물사연구』 22, 한국인물사연구회, 2014.

윤병석, 「요좌기행」·「요좌기행 해설」, 『사학지』 8, 단국사학회, 1974.

이병조, 「러시아 정교와 개신교의 만남과 충돌」, 『슬라브연구』 24-1,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08.

이상근, 「한인 노령 이주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종우, 「19세기 嶺南學派의 人物性同異論爭 批判」, 『유교사상연구』 36, 한국유교학회, 2009.

전민경, 「연행록에 나타난 조선 후기 만주족에 대한 인식」, 『동양한문학연구』, 동양한문학회, 2021.

정우락, 「『요좌기행』을 통해 본 장석영의 만주체험과 그 의의」,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최규진, 「러일전쟁 전후 한국인의 러시아 이미지 형성 경로와 러시아 인식」, 『마르크스주의 연구』 7,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하경숙·구사회, 「『환구음초』에 나타난 지식인의 근대 문명 인식과 특질」, 『온지논총』 54, 온지학회, 2018.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회(편), 『한국민족운동과 민족문제』, 국학자료원, 1999.

한길로, 「백계 이기인의 「蜜山追憶記」 연구, 『영남학』 76, 경북대학교 영남학연구소, 2021.

_____, 「晦堂 張錫英 滿洲· 기행시의 시적 구현 양상」. 『영남학』 80, 경북대 영남학연구원, 2022.

홍학희, 「1896년 러시아 황제 대관식 축하사절단의 서구체험기, 『해천추범』」,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Abstract>

An Aspect of Sino-centrism in the Modern Age through Jang Seok-young's Experience in Russian Far East

Han, Gil-ro

Hoedang Jang Seok-young's 『Yojoagihaeng』, is the travel record of the 20th century to North Manchuria and Russia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This is a significant record of the external perception and local situation of Confucian intellectuals, and a literary work that expanded the territory of Korean Chinese literature. As a 62-year-old man at the time, he traveled 5,890km in a period of about 100 days to Manchuria and Russia in January 1912. The purpose of the trip was to leave Korea and move to a new place, but Russian culture and the lives of Korean residents in the Far East shocked him greatly. This is because there were many differences between Russian culture and Confucian traditions, and the lives of Koreans were also assimilated into Russia. He was also very disappointed by the division and conflict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groups. Eventually, he judged that Russia was not a new place of life, and that their culture was collided with Korean traditions. In other words, the Sinocentrism inside him was

being further strengthened. Sinocentrism was recognized as an internal tradition, not an external one, and his perception later led to the Confucius religious movement.

Key words : Jang Seok-young, 『Yojoagihaeng』, Sinocentrism, Lee Seung-hee, Korean Residents in Russian Far East.

한길로
길림대학교 한국(조선)어학과 부교수
吉林省 長春市 前進大街 2699号 吉林大學 外國語學院 520號
전자우편: philosmind@naver.com

이 논문은 2022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22년 4월 5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2년 4월 12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